

전문건설기업 해외수주 현황 분석 및 시사점

2014. 5. 19.



전문건설기업 해외수주 현황 분석 및 시사점

2014. 5. 19.

목 차

《 요약 》

I. 서언	1
II. 현황 분석	1
1. 전문건설기업 해외수주 추이 분석	1
가. 업종별 수주 추이	2
나. 지역별 수주 추이	4
다. 대기업과 전문건설기업간 해외수주 상관관계	5
2. 중소건설기업 해외수주 추이 분석	6
III. 시사점 및 제안	9
참고자료	11

《 요 약 》

- 전문건설기업의 해외수주액은 2004년 약 1.1억불 대비 2013년도에는 23.1억불로 약 2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수도 2004년 39건에서 2013년 349건으로 약 9배로 급증(본문 [그림-1] 참조)
 - 반면, 동일 기간 대기업 해외수주 누계액은 약 9배, 건수는 약 2.5배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 2004~2013년간 전문건설기업의 업종별 해외수주 누계액을 살펴보면, 토공이 26%(32.6억불)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기계설비공사사업이 약 25%(30.7억불), 금속구조물·창호공사사업 약 9%(11.3억불)를 점유
 - 또한 지난 10년간 업종별 해외수주 누계건수는 기계설비공사사업이 408건으로 가장 많으며 실내건축공사사업 384건, 토공사업이 244건으로 집계
 - 2004~2013년간 전문건설기업의 지역별 해외수주 누계액을 살펴보면, 중동지역이 62%(77.6억불)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아시아 25%(30.7억불), 아프리카지역 6%(7.4억불)를 점유하고 있어 중동 및 아시아시장이 전체 87%로 편중이 심한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의 해외수주액은 2004년(4.3억불) 대비 2013년(35.9억불)에는 8.4배 증가했으며 수주건수 역시 2004년 141건에서 2013년도에는 661건으로 4.7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본문 [그림-8, 9] 참조)
 - 일반건설업은 2007년(49.4억불)과 2008년(44.5억불)을 기점으로 전성기를 누렸으나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2013년에는 5.3억불에 그침
 - * 이는 2000년대 중반부터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 붐에 따라 일반건설업종 보유 기업(일부 중견기업 포함)을 중심으로 투자개발형 공사 수주가 2007, 2008년도에 집중되었기 때문
 - 비 일반건설업(전문건설업 포함)의 경우 해외수주 규모는 2004년(2.4억불) 대비 2013년(30.6억불)에는 12.7배 급증

- 해외에 진출한 전문건설기업 수는 2004년도에 24개사밖에 안되었지만 2013년도에는 160개사로 6.5배 증가(본문 [그림-12] 참조)
 - 중소기업 수는 74개사에서 346개사로 4.5배 증가
- 전문건설기업의 2013년도 해외 하청 비중이 약 94%에 달하며 2004~2013년간 대기업-전문건설기업간 해외수주 상관관계는 96%로 원-하청 관계가 중요
 - 2014년 초 중소·중견기업 88개사 대상 설문조사에 의하면, 하청 공사 참여시에 해외현장에서 예외상황 발생 시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애로사항이 응답자의 40%에 달함
- ⇒ 전문건설기업의 하청비중이 높은 만큼 하도급 참여에 대해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상생을 위한 점진적인 동반자적 관계의 제도적 확립 요망

전문건설기업 해외수주 현황 분석 및 시사점

I. 서언

최근 들어 국내 건설시장 포화로 전문건설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해외시장은 주요국 정세 및 경제상황, 국제유가 등에 따라 크게 요동칠 수 있어 정확한 현지 시장정보, 인적네트워크, 급변하는 리스크 관리 방안 없이 공격적으로 진출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초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선 대기업과 상생협력 진출이 효율적이며 차후에는 축적된 실적과 경험을 바탕으로 영역확대가 필요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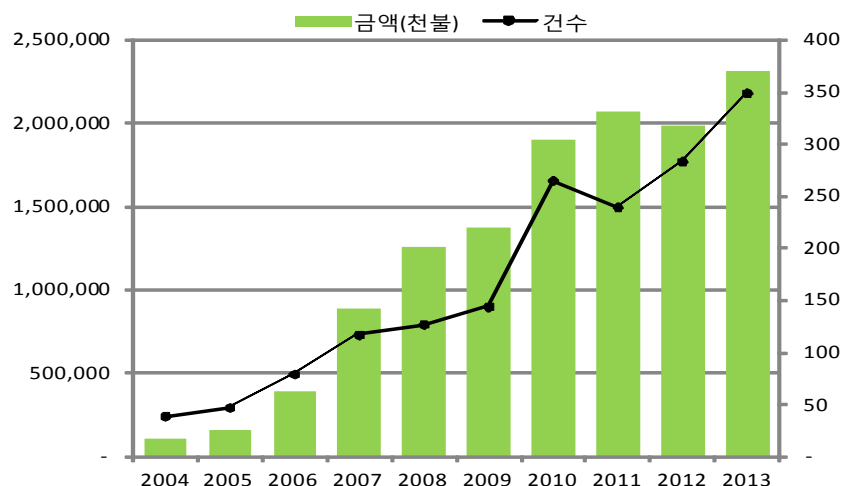
본 보고서에서는 대기업의 하청형태로 해외진출이 활발한 전문건설기업의 해외수주 추이를 분석해보고 대기업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II. 현황 분석

1. 전문건설기업의 해외수주 추이

전문건설기업 해외 수주액은 2004년 약 1.1억불 대비 2013년도에는 23.1억불로 약 2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수도 2004년 39건에서 2013년 349건으로 약 9배 증가해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동일 기간 대기업 해외수주 금액은 약 9배, 건수는 약 2.5배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 전문건설기업 해외수주액 및 건수 추이



참고로 전문건설기업의 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등 총 29개 분야로서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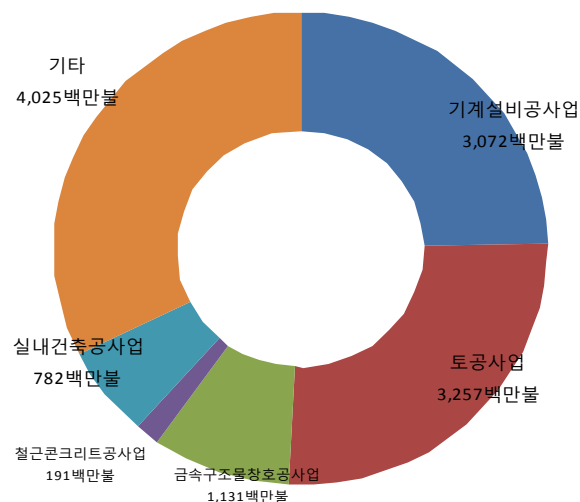
[표-1] 전문건설업종의 종류

1. 실내건축공사업	16. 조경식재공사업
2. 토공사업	17.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3. 미장·방수·조적공사업	18. 강구조물공사업
4. 석공사업	19. 철강재설치공사업
5. 도장공사업	20. 삭도설치공사업
6.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21. 준설공사업
7.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22. 승강기설치공사업
8.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23.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9. 철근·콘크리트공사업	24.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10. 기계설비공사업	25.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11. 상·하수도설비공사업	26. 난방시공업(제1종)
12. 보링·그라우팅공사업	27. 난방시공업 (제2종)
13. 철도·궤도공사업	28. 난방시공업 (제3종)
14. 포장공사업	29. 시설물유지관리업
15. 수중공사업	

가. 업종별 해외수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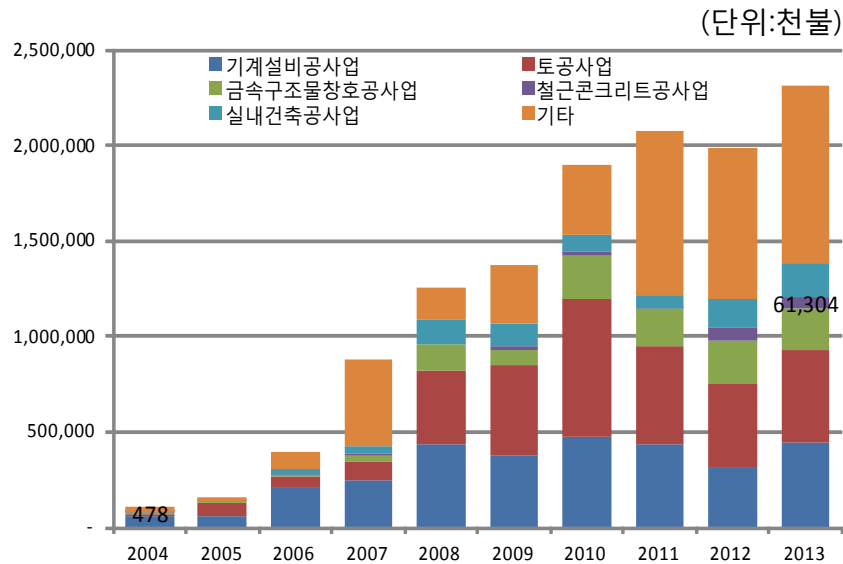
2004~2013년간 전문건설기업의 업종별 해외수주 누계액을 살펴보면, 토공사업이 26%(32.6억불)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기계설비공사업이 약 25%(30.7억불),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약 9%(11.3억불)를 점유하고 있다.

[그림-2] 전문건설기업 업종별 해외수주 누계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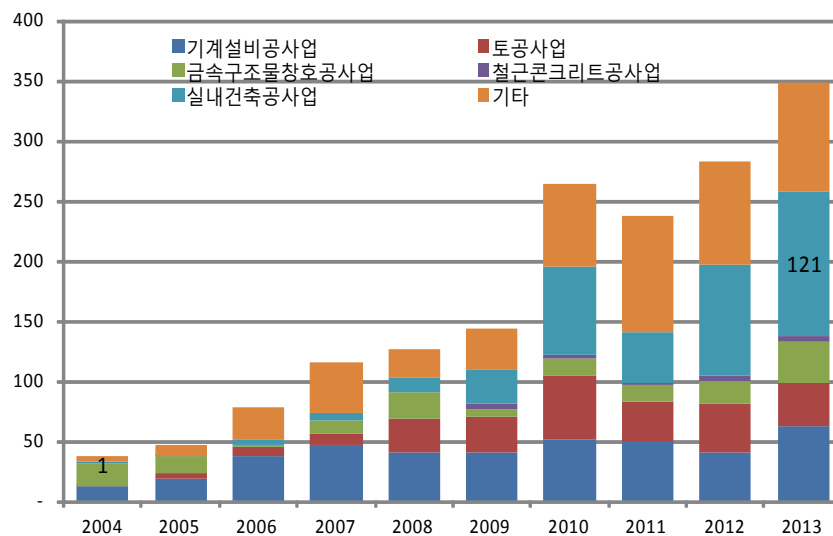
한편, 업종별 해외수주추이를 살펴보면,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2004년(0.4백만불) 대비 2013년(61백만불)에는 약 128배, 실내건축공사업이 약 107배,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이 약 87배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3] 전문건설기업 업종별 해외수주 추이



지난 10년간 업종별 해외수주 누계건수는 기계설비공사업이 408건으로 가장 많으며 실내건축공사업 384건, 토공사업이 244건으로 집계되었다. 수주건수 추이를 살펴보면, 실내건축공사업이 2004년 1건에서 2013년 121건으로 늘어났으며 다음으로 토공사업 약 36배, 기계설비공사업 약 5배,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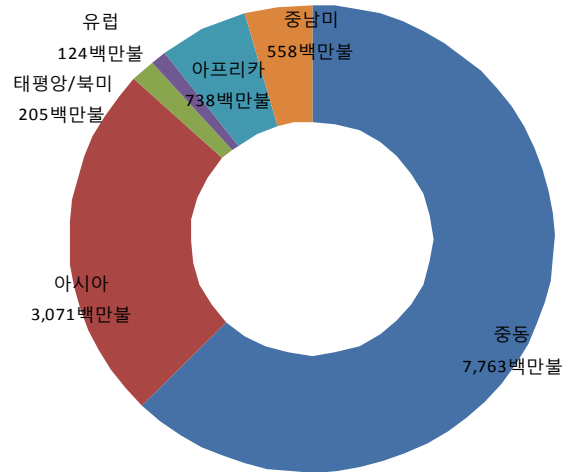
[그림-4] 전문건설기업 업종별 해외수주 건수 추이



나. 지역별 해외수주 추이

2004~2013년간 지역별 해외수주 누계액을 살펴보면, 중동지역이 62%(77.6억불)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아시아 25%(30.7억불), 아프리카지역 6%(7.4억불)를 점유하고 있어 중동 및 아시아시장이 전체의 87%로 편중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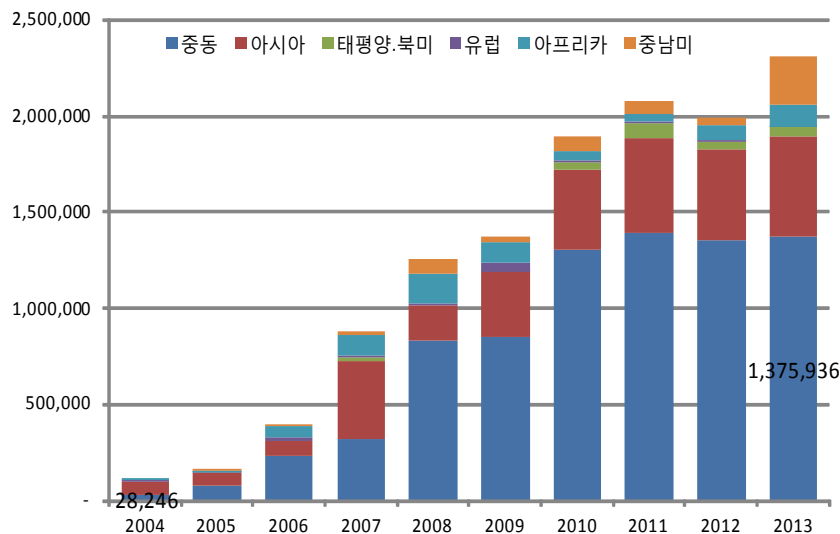
[그림-5] 전문건설기업 지역별 해외수주 누계액



지역별 해외수주 추이를 살펴보면, 중동지역이 2004년(0.3억불) 대비 2013년(13.8억불)로 약 49배 증가하였으며 이어 아프리카지역이 약 47배, 아시아지역은 약 7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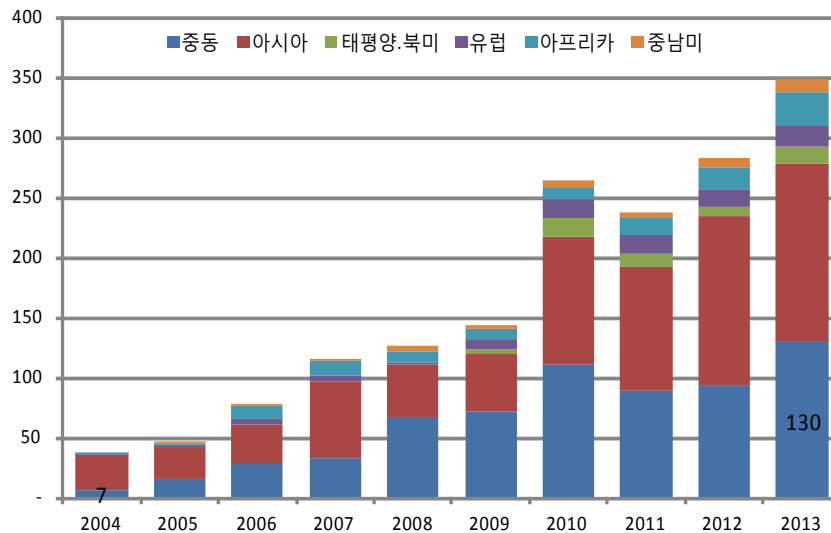
[그림-6] 전문건설기업 지역별 해외수주 추이

(단위:천불)



지난 10년간 지역별 해외수주 누계건수는 아시아지역이 744건으로 가장 많으며 중동이 652건, 아프리카지역이 119건으로 집계되었다. 수주건수 추이를 살펴보면, 중동지역이 2004년(7건) 대비 2013년(130건)에는 약 19배, 유럽지역 17배, 아시아지역 5배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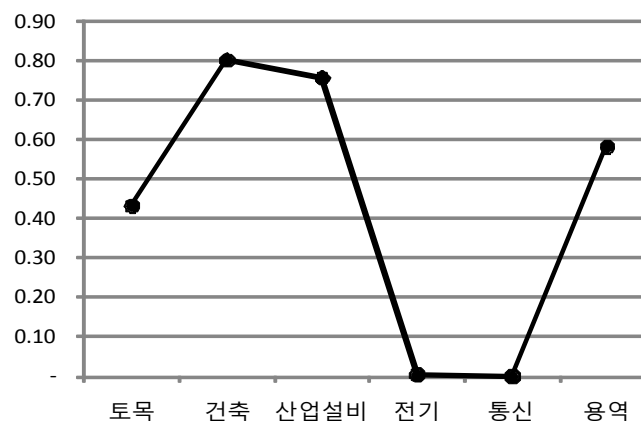
[그림-7] 전문건설기업 공종별 해외수주 건수 추이



다. 대기업과 전문건설기업간 해외수주 상관관계

2004~2013년간 대기업-전문건설기업간 해외수주 상관관계¹⁾는 96%로 대기업의 수주 물량이 증가하면 전문건설기업의 수주물량도 함께 증가할 확률이 96%에 달한다.

[그림-8] 대기업과 공종별 해외수주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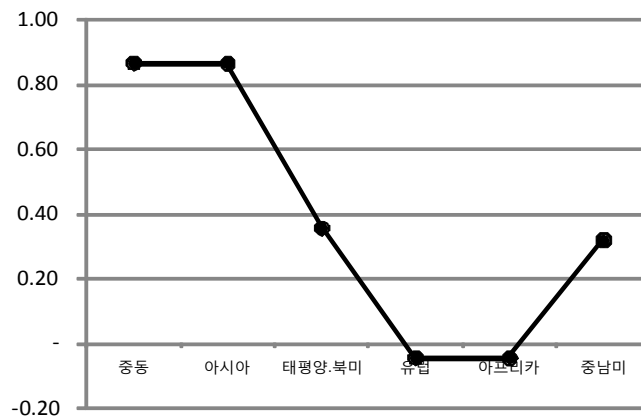


1) 대기업의 수주액과 중소기업 하청 수주액과의 상관계수치를 백분율로 환산, 대-전문건설기업간 상관관계도 동일

대기업-전문건설기업간 해외수주 상관관계를 공종별로 살펴보면, 건축이 80%로 가장 크며 산업설비가 76%, 용역(엔지니어링)이 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전문건설기업간 해외수주 상관관계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동 및 아시아 지역이 각각 상관관계가 가장 많은 87%이며, 북미·태평양지역이 36%, 중남미가 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9] 대기업과 지역별 수주 상관계수



2004~2013년간 대기업-전문건설기업 협업 연관성이 가장 낮은 부문은 상관관계가 낮은 통신, 토목 등이며 지역은 유럽, 아프리카, 북미·태평양, 중남미지역으로 볼 수 있다. 이들 공종과 지역에서는 현지 혹은 외국기업과의 협업을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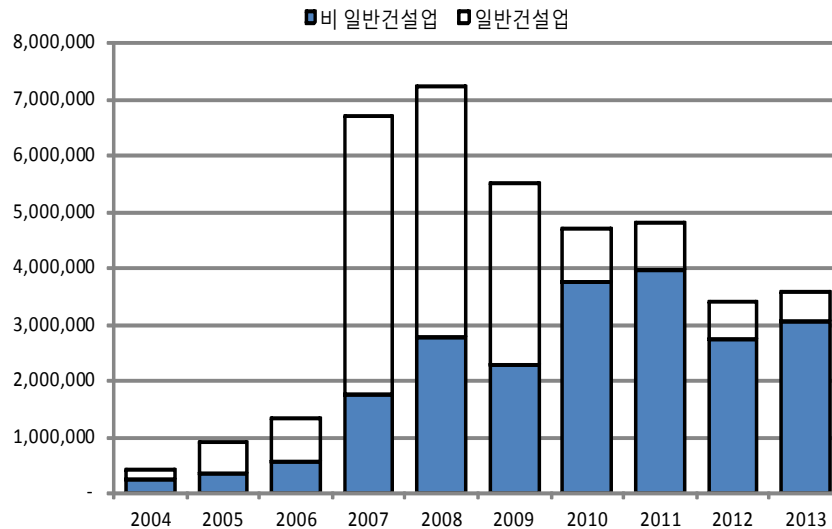
2. 중소건설기업 해외수주 추이

중소기업²⁾의 해외수주액은 2004년(4.3억불) 대비 2013년(35.9억불)에는 8.4배 증가했으며 수주건수 역시 2004년 141건에서 2013년도에는 661건으로 4.7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 중소기업의 정의 : 업종별 규모기준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인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참조)

[그림-10] 중소기업 해외수주액 추이

(단위:천불)



중소기업을 일반건설업³⁾과 비 일반건설업(전문건설업 포함)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일반건설업은 2007년(49.4억불)과 2008년(44.5억불)을 기점으로 전성기를 누렸으나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2013년에는 5.3억불에 그쳤다. 이는 2000년대 중반부터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 붐에 따라 일반건설업종 보유기업(일부 중견기업⁴⁾ 포함)을 중심으로 투자개발형 공사 수주가 2007, 2008년도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일례로 투자개발형 공사 수주액이 2007년도 약 10억불(성원, 반도건설), 2008년도 약 23억불(우림건설 등)을 기록하면서 전반적인 중소기업 수주 증가에 일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 2007~2008년간 주요 투자개발형 공사 리스트

기업	프로젝트	금액(천불)	계약시기
성원건설	UAE 컬쳐빌리지 상떼뷰 신축공사	248,344	2007.6
반도건설	유보라 타워 프로젝트	382,287	2007.8
우림건설	카자흐스탄 알마티 복합단지 개발사업	1,439,839	2008.2

3) 일반건설업종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으로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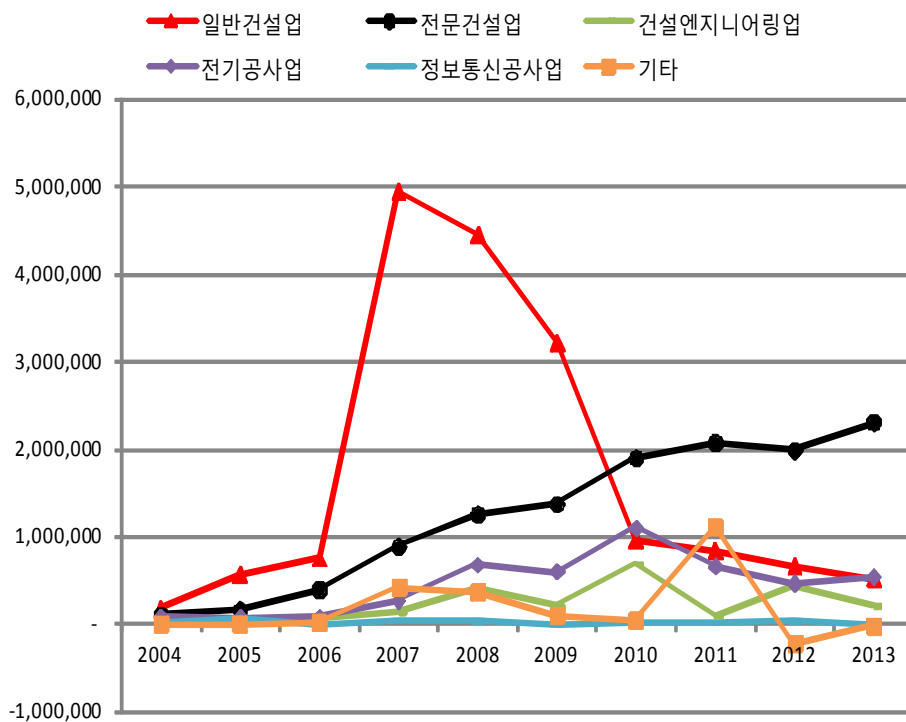
4) 중견기업의 정의 :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나고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산업발전법 제 10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3조의 2 참조),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는 2012년부터 중견기업 분류

2004~2013년간 중소기업의 금융조달별 수주액을 살펴보면, 도급형 공사 점유율이 73.3%, 개발형이 21.8%, 시공사 금융주선형이 4.7%로 드러났다. 도급형 공사 수주 추이는 유지되고 있고, 시공사 금융주선형 공사가 증가추세에 있으나, 개발형 공사는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04년부터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던 개발형 공사수주는 2008년을 정점으로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 일반건설업의 경우 해외수주 규모는 2004년(2.4억불) 대비 2013년(30.6억불)에는 12.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그림-11]에서와 같이 투자개발형 공사가 급격히 감소한 이후 일반건설업의 비중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나 전문건설업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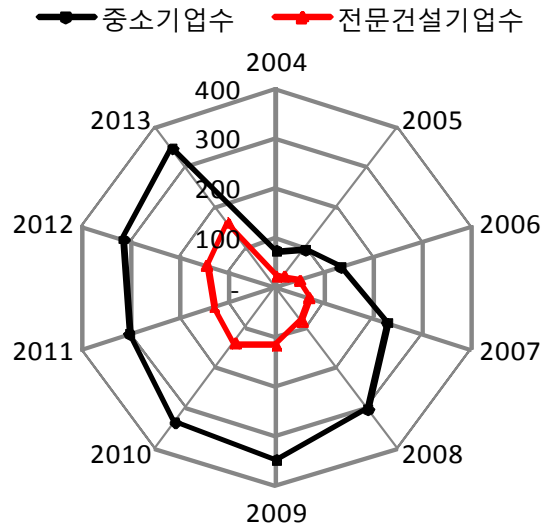
[그림-11] 중소기업 업종별 해외수주 추이

(단위:천불)



한편, 해외에 진출한 중소기업 수는 2004년 74개사에서 2013년도에는 346개사로 4.5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전문건설기업 수는 2004년도에 24개사 밖에 불과했지만, 2013년도에는 160개사로 6.5배 이상 늘어나 10년 사이에 해외로 진출한 전문건설 기업수의 증가폭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12] 최근 10년간 진출기업 수 추이



III. 시사점 및 제안

지금까지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해보면, 전문건설기업은 금액이나 건수에서 뚜렷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중견기업이 포함된 중소기업은 이례적으로 증가한 2007~2008년도를 제외하면 전반적인 수주 증가세 유지 또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하청비중이 2013년도에 약 94%에 달하는 전문건설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시 애로사항 및 하청 참여시 해결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2014년 1월 중소·중견기업(엔지니어링사 포함) 88개사와 대기업 17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으로는 발주정보 및 진출국에 대한 정보수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외사업이 아직 미숙한 중소·중견기업은 대기업처럼 이미 해외지사나 법인을 통해 발주처 및 기관과 긴밀히 네트워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발주정보나 현지국 정보수집이 절실하게 느껴질 것이다. 또한, 시장개척지원자금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중견·중소기업은 신규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회수 가능성이 낮은 매몰비용의 투입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시장개척지원자금이 보다 확대된다면 이를 활용하여 상당 부분 리스크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소·중견기업 88개사의 해외 하청공사 참여시 최대 애로사항으로는, 해외 현장에서 예외상황 발생 시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40%에 달했다.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 갑·을의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원도급사에서 발생한 손실을 하도급사에서 대신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공사를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표-3] 중견·중소기업의 해외 하청공사 참여시 애로사항

하청 공사시 애로사항	응답비율(%)
예외상황 발생 시 손실 감수	40
현지 정보부족	21
건적비용 협상	18
이행성 보증 발급	12
인력 수급 및 자재 통관	5
벤더(Vendor) 등록	4

회사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국내뿐만 아니라 특히 해외에서 하청 비중이 클 수밖에 없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원청 수주가 바람직하다. 예컨대 토공(보링그라우팅 공사) 업종에 특화된 동아지질은 국내에서도 잘 알려진 전문건설기업으로 1996년도에 최초로 필리핀 상하수도설비공사(원청사:대우건설)를 수주하여 1997년에는 동일 공종을 원청으로 수주한 바 있다. 동아지질은 안정적인 공사수주에 중점을 두고 있기에 원청 참여가 가능하지만 원청 이외에 하청규모도 약 3.5억불로 원청의 3배 이상 이나 된다.

상기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특화된 공종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해도 해외진출에 보수적일 수 있으며 전문건설기업 입장에서 리스크를 감안하여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진출패턴을 선호할 것이다. 즉 해외진출은 단계가 필요하며 확신이 있을 때 원청으로 참여해도 늦지는 않을 것이다.

전문건설기업의 하청비중이 높은 만큼 하도급 참여에 대해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상생을 위한 점진적인 동반자적 관계의 제도적 확립이 요망되며,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분쟁해결을 위한 특별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따라서 현재 해외에서 하청 비중이 높은 전문건설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점진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하청사를 과보호 한다면 대기업이 하청사와 동반 진출을 꺼려할 것이므로 대기업에게도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상생협력 방안이 필요하겠다.

참고자료

[대기업 및 전문건설기업 해외 수주 추이]

구 분	대기업		전문건설기업	
	금액(천불)	건수	금액(천불)	건수
2004	7,163,487	112	110,359	39
2005	10,101,546	115	162,186	47
2006	15,475,121	147	397,631	79
2007	33,870,784	297	884,319	117
2008	41,857,946	292	1,256,076	127
2009	45,411,136	261	1,373,532	144
2010	69,795,107	318	1,897,895	265
2011	57,092,683	392	2,075,047	239
2012	62,974,336	267	1,991,198	283
2013	63,731,612	283	2,310,152	349

* 전문건설기업 수주금액 및 건수는 하청 포함

[주요 업종별 중소기업 수주금액 추이]

(단위:천불)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건설엔지니어링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총 계
2004	184,113	110,359	21,133	89,260	20,838	425,703
2005	572,840	162,186	39,793	78,777	60,386	914,642
2006	759,454	397,631	67,118	89,035	680	1,334,961
2007	4,943,309	884,319	135,190	269,122	42,947	6,699,867
2008	4,451,729	1,256,076	428,879	680,912	36,529	7,213,925
2009	3,210,795	1,373,532	217,002	603,923	5,284	5,509,952
2010	962,196	1,897,895	691,055	1,099,466	15,896	4,712,472
2011	846,976	2,075,047	92,437	659,952	30,430	4,817,665
2012	670,022	1,991,198	450,667	460,922	41,019	3,397,389
2013	528,032	2,310,152	210,720	547,441	8,092	3,590,949